

보도시점 : 2025. 1. 25.(토) 16:00 이후 / 배포 : 2025. 1. 25.(토)

사조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조사 현황

□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'사조위')는 '12·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'와 관련하여 초기 현장조사를 마치고, 1월 25일(토) 13시 무안 공항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고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.

○ 또한,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예비보고서*를 사고 발생 30일째인 1월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와 관계국** (미국, 프랑스, 태국)에 송부하고 사조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.

* (Preliminary Report) 조사 초기 확보한 사실 정보(항공기 정보, 인적·물적 피해 현황,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 등)를 신속히 ICAO 등에게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

** 국제민간항공기구, 등록국 또는 사고발생국, 운영국, 설계국, 제작국

※ 국제규정에 따라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미국(NTSB)과 항공기 엔진 제작국인 프랑스(BEA)가 신임대표 자격으로 사고조사에 참여

□ 사조위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항공기 잔해 조사, 주요 부품·기체와 엔진 조사, 드론 촬영을 통한 잔해 분포도 작성, 시료 채취 및 운항·정비 자료 확보 등에 집중해 왔으며,

○ 미국 교통안전위원회(NTSB, 2024.12.31.~)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(BEA, 2025.1.14.~)과 협력하여 합동으로 사고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

○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동체, 날개 등 모든 잔해물은 사고현장에서 무안공항 격납고 등으로 분산 이동(1.17) 되었습니다.

* 무안공항 운영자(한국공항공사)의 요청으로 시설물 복구 관련 4월 18일까지 공항 폐쇄

- 1월 20일부로 초기 현장조사를 종료하였으며,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잔해를 사조위 시험분석센터(김포공항)로 운송(1.21)하였고, 필요시 무안공항을 오가며 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.
- 사고기의 운항상황 및 외부영향, 기체·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(비행자료기록장치(FDR), 조종실 음성기록장치(CVR)) 및 관제교신 기록 등 자료를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이며, 이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항공기가 방위각 시설에 충돌하기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자료의 기록이 중단되었고, 중단 전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① 08:54:43(시:분:초) : 항공기는 무안관제탑과 착륙 접근을 위한 최초 교신
→ 관제탑은 활주로 01로 착륙 허가
- ② 08:57:50 : 관제탑은 항공기에게 조류 활동 주의 정보 발부
- ③ 08:58:11 : 조종사들은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
- ④ 08:58:50 : FDR 및 CVR 기록 동시 중단
* (기록중단 당시) 속도 : 161kts(노트) / 고도 498ft(피트)
- ⑤ 08:58:56(CVR 기록으로 계산한 시간) : 항공기 복행 중 조종사는 관제탑에 조류충돌로 인한 비상선언('Mayday') 실시
* (당시 정시기상관측정보) 바람 110° 방향에서 2kts / 시정 9,000m / 구름은 4,500ft에 구름이 조금 있는 상태 / 온도 2°C / 해면기압 1028(hPa), 특별한 기상 변화 없음
- ⑥ 약 4분간 : 활주로 좌측 상공으로 비행하다가 활주로 19로 착륙하기 위해 우측으로 선회 후 활주로에 정대하여 접근 →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 후 활주
- ⑦ 09:02:57 : 활주로를 초과하여 방위각 시설물과 충돌
※ 최종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 및 시간은 일부 수정될수 있음

○ 사조위는 항공기 복행 중 조류와 접촉하는 장면을 공항 감시 카메라 (CCTV) 영상에서 확인하였고 엔진조사 중 양쪽 엔진에서 깃털과 혈흔을 발견하였습니다. 국내전문기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, ‘가창오리’의 깃털과 혈흔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-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수나 다른 종류의 조류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으며, 엔진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하여 엔진분해 검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.

○ 사조위는 잔해 정밀 조사, 블랙박스 분석, 비행기록문서 확인, 증인 인터뷰 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, 사고조사 과정에서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, 보다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컬라이저 둔덕 및 조류 영향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연구할 계획입니다.

□ 사조위는 앞으로도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 상황을 가장 먼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하겠습니다.

- 그동안 현장에서 긴박하게 초동조치 및 조사에 임해 왔으나, 이제 부터는 운항·정비 등 각 그룹별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조사할 예정으로,

-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	책임자	사무국장	김수정 (044-201-5422)
			사무관	배기후 (044-201-5447)